

장르 문학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 북스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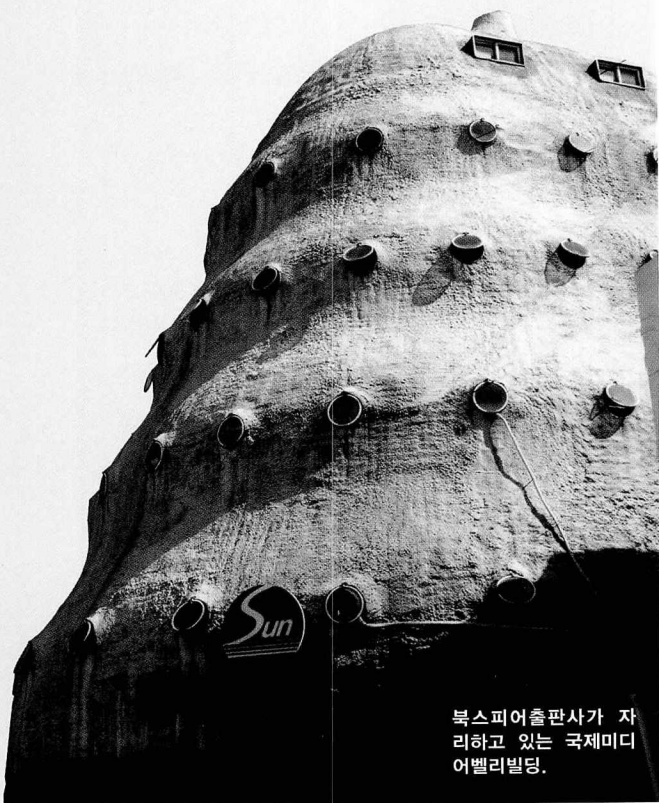
북스피어에서 출판한 아발론 연대기와 두개골의 서

북스피어는 '누스페어(NooSphere)' 라는 개념에서 착안을 했다고 한다. 누스페어는 '정신'을 뜻하는 '누(Noo)'와 시공간계를 뜻하는 '스페어(Sphere)'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정신을 뜻하는 '누' 대신에 출판사로써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북(Book)'을 넣기로 하면서 '북스피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다. 그런데, 그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Booksfeare'라고 되어 있다. 이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해서 책의 공포를 표현한 것이다. 이밖에도 'Book Spear(책의 새싹)', '북스(book) 피어라', '북(book) 숲이야' 등 흥미로운 시선으로 자신들의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놓고 있다.

## 무모하지만 의미 있는 도전, '아발론 연대기'

북스피어(공동대표 김홍민·최내현, [www.booksfeare.com](http://www.booksfeare.com))는 지난 2005년 6월 처음 출판사 등록을 하면서 출판업계 발을 들여놓았다. 오랫동안 진보성향의 잡지에서 편집 일을 해오던 김홍민(31) 대표에게 출판이란 것이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를 차리고 책을 낸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출판사 등록을 하고 나서, 한국출판인회의(SBI)에서 진행되는 출판경영과정을 찾게 됐다.

그렇게 우연히 찾아간 그곳에서 김홍민 대표는 많은 선배들과 만났다고 한다. 그때 당시 한참 '아발론



북스피어출판사가 자리하고 있는 국제미디어벨리빌딩.

‘아발론 연대기’ (김정란 역, 전8권)란 책을 내놓으며 출판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출판사가 있다. 보통 신생출판사가 8권짜리 책을 내놓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출판사의 자회사이나, 어디서 오랫동안 있었느냐는 질문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발론 연대기’를 완성하고 싶었기 때문에 출판사를 차린 것뿐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끝난 것일까? 최근 ‘두개골의 서’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는 북스피어를 찾았다.

연대기'가 준비되고 있던 중이라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으나, 그리 좋은 반응은 아니었다. 인지도도 낮은 출판사에서 전집류를 출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지금 출판환경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출판사 사장들이 ‘너희는 망한다’고 으스스리를 한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커졌지만, 한편으로 ‘아발론 연대기’에 대한 목마름 역시 함께 커졌다.

#### 출판의 높은 벽 실감, ‘청아문화사’와의 인연

그러나 정작 어려움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기기 시작했다. 기획과 번역 단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출력, 인쇄, 제책을 할 곳을 찾지 못했다. 누구도 8권짜리 대작을 싣뜻 맡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정말 힘들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선배 중 한 분이 명함을 건네면서 “한번 찾아와 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떠난 뒤 명함을 들여다보니, ‘청아문화사 김남수 대표’라고 쓰여 있었다고.

김홍민 대표는 바로 다음날 청아문화사를 찾아갔고, ‘아발론 연대기’에 대해 김남수 사장에게 책의 기획에서, 내용, 진행 상황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흔쾌히 인쇄를 도와주기로 하고, 제책업체까지 모두 데리고 다니면서 북스피어 김

홍민 대표를 소개해주었다. “출판을 시작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믿을만한 친구일세”,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청아문화사로 청구하라 그래!” 이런 말들은 그 당시 자신감을 잃어가던 그에게 큰 힘이 됐다.

#### 실무적인 어려움, 선배들의 조언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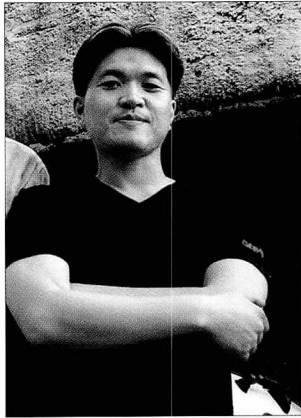
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책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문제였다. 그때 마침 구원투수가 타나났다. 바다출판사 김인호 사장이었다.

“바다출판사 김인호 사장님은 자신이 지금 나이 때 쯤 어렵게 시작해서인지 후배들에게 애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스피어는 다시 한 번 선배의 도움을 받게 됐다. 그의 조언은 정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서점과 계약할 때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 말을 하되, 이런 조건이면 하고, 아니면 하지마라는 식으로, 또 홍보할 때는 어느 신문사 누구와 만나고, 그들에게 어떤 자료를 주고, 어디를 강조해야 된다는 등으로 실무적인 코치를 해줬다. 그런 조언들은 북스피어가 시행착오를 줄여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됐다고.

북스피어는 이를 행운이라고 말한다. 북스피어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 “외면되어 온 책소개 최선”



김홍민 대표이사

### ‘복스피어’는 어떤 출판가가 되길 원하나요?

우리나라 문학출판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무시되거나 외면당했던 분야의 책들을 찾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 마니아층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닌,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르가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큰 출판사에서 자회사를 내고, 장르출판을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물량 공세만 아니라면 충분히 경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색깔 있는 출판사가 되길 원합니다.

### ‘복스피어’의 책들은 왠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저희 스스로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지만, 자랑할만한 것은 못됩니다. 그냥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독자들에게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책을 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책의 가치는 책의 콘텐츠에도 있지만, 콘텐츠를 담고 있는 서적 자체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의 재미도 보장되고, ‘이왕이면’ 가지고 다닐 때나, 책장에 꽂아 두었을 때 독자들에게 뿌듯한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한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다시금 손이 가게 하는 책을 만드는 게 복스피어의 목표이기도 하죠.

선배들이 나타났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복스피어도 시간이 지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때까지 선배들의 믿음과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할 사명감을 느낀다.

### ‘두개골의 서’로 다시 돌아오다

복스피어는 ‘아발론 연대기’를 출간한 후 6개월동안 아무 책도 출간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인지 다음 책을 쉽게 정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번역된 원고만 2개 정도 되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출판을 포기했다. 김홍민 대표는 그만큼 첫 작품이 가지는 의미가 큰 것 같다고 말한다. ‘아발론 연대기’ 정도의 재미는 보장된 책이어야 하지 않은가. 그 정도의 얇의 즐

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고, 또 읽고 나서 그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고. 그러다보니 쉽게 다음 책을 결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고민한 후 준비한 책이 ‘두개골의 서’였다. 이전 잡지사에서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복스피어 임지호 편집장과, 공동대표인 최내현씨가 힘을 합쳐 15일 만에 번역을 끝냈다. 책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바로 저작권 계약과 기타 출판에 필요한 준비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었고, 표지시안을 잡고, 인쇄에 들어가 서점에 배포될 때까지 한 달의 시간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물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만큼 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2000부 정도만을 찍었다. 그러나 바로 일주일만에 재판을 찍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 북스피어 정체성 맞는 책출간 '올인'



임지호 편집장

### 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은 독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재미가 보장되고 나서 나머지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신화'입니다. 신화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이야기이지만, 현실세계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스피어는 좀 더 신화에 다가가는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좀 색다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10권 정도의 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스피어'라는 출판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책을 내기 위해 출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책을 골라 소개하는 안목을 가진 출판사, 아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을 개척하는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북스피어는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김홍민 대표는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기쁘겠지만, 일부러 출판사의 역량을 베스트셀러를 만드는데 집중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되, 재미와 감동, 즐거움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편집하고, 출판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독자들도 그런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스피어는 앞으로 SF, 추리, 로맨스 등 국내에서 외면당하던 분야의 좋은 책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책들도 7종 이상 되는데, 그 중에는 엔 메카폴의 '드레곤 시리즈'라는 하드코어 판타지, 조나단 케롤의 판타지 소설, 미야베 미유키의 미스터리 소설 등이 있다.

북스피어의 모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재미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편집자들이 재미를 느껴야 독자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홍민 대표와 임지호 편집장은 책을 고를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얌의 즐거움도 있어야 할 것이고, 감동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일부분은 교훈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책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책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 그들을 즐겁게 한다. 그들이 출판이라는 세계를 여행하는 건 모험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얻기 위해서다. 물론 그 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신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일들을 하다보면, 그 답이 어느덧 곁에 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